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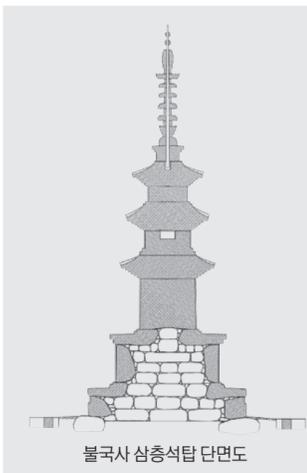
# 불국사 삼층석탑 1300년전 모습 찾는다

## 문화재연구 '옥개석 설치 현장' 공개

### “훼손이후 결점 과학적 연구·보강 창건당시 기술실현 1000년 유지”

올 연말 경주 불국사 석가탑이 1300여 년 전 처음 세워진 모습 그대로 다시 국민 곁으로 돌아온다. 지난 4일 불국사 대웅전 앞, 경내 다보탑 맞은편 삼층석탑(석가탑) 주변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2012년 전면 해체 수리 작업을 위해 설치한 가설뿔집 속 석가탑은 3층 탑신(塔身, 탑기단과 상륜 사이의 탑의 몸)까지 조립이 완료된 상태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날 삼층석탑 수리 현장에서 보수 추진경과 설명회와 3층 옥개석(屋蓋石, 탑 위 지붕처럼 덮는 돌)을 설치하는 작업을 언론에 공개했다.

본격적인 설치 작업에 앞서 3층 탑신 상부에 고운 모래(細沙)를 편편하게 펴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이는 석재와 석재 간에 맞닿는 면적을 최대화해 무게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연구소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어 오전 11시 30분경 3.5톤이 넘는 육중한 무게의 옥개석이 크레인 끌음과 함께 공중으로 서서히 들어 올려졌다.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제120호 이의상 석장의 진두지휘 아래 연구소 관계자들은 신호를 주고받으며 옥개석을 놓았다. 옥개석 설치의 정확한 조립이 이뤄졌는지 수평계를 통해 확인



불국사 삼층석탑 단면도

### △ 석가탑 연혁 및 해체·보수과정

- 742년 신라 경덕왕 원년 불국사 창건 때 조성
- 1024년 고려 현종 15년 해체수리
- 1036년 고려 정종 2년 지진 피해 보수
- 1596년 조선 선조 20년 우리로 상륜부 손상
- 1966년 도굴 시도로 훼손(부분해체수리)
- 1972년 상륜부 복원
- 2010년 상층기단 갑석 균열 발견
- 2012년 해체 수리 시작
- 2012년 5월 경주석조문화재 보수정비단 개소
- 2012년 12월 상륜부 해체
- 2013년 3월 탑신부 부재해제 진행
- 2013년 4월 옥개석 해체 사리장엄구 등 수습
- 2015년 9월 몸돌 사리공에 사리장엄구 재봉안

하는 작업을 끝낸 뒤에야 최종 마무리 됐다. 불국사 석가탑 복원은 이제 지붕 위 정자에 해당하는 상륜부 조립 작업만 남겨놓고 있다. 올 연말까지 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12월 중 가설뿔집까지 철거하고 나면 비로소 그 자태를 드러내게 된다.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경에는 1300여 년 전 '원형'에 가까운 탑의 모습을 일반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석가탑 보수 공사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통기술과 현대과학을 통해 새롭

게 연구 검증된 첨단기술을 함께 적용했다는 점이다. 김덕문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장은 원형성 및 진정성 확보를 위해 석탑 중심축은 십(十)자막 원리를 이용해 탑을 다시 쌓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첨성대를 지을 때 사용했던 공법으로 각 단마다 중심축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다.

고려시대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식된 철제 은장 재료도 개선했다. 부식으로 인해 녹물오염 등을 발생시키는 철제 은장 대신 열팽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4일 불국사 석가탑 3층 옥개석 설치 작업을 마쳤다. 사진제공=문화재청

창이나 열전도율이 낮고 연성이 뛰어난 티타늄 은장을 사용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새롭게 개발한 보존처리법을 활용해 개진 부재는 100% 다시 사용했다. 김덕문 실장은 “훼손 이후 나타난 결점을 최대한 과학적으로 연구 보강하고, 창건 당시 사용했던 지혜로운 기술은 고증 작업을 거쳐 이번 보수 공사에 실현했기 때문에 1000년이 지나도 안전하게 보존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742년 신라 경덕왕 때 세워진 석가탑은 통일신라 조형예술의 극치로 우리나라 최고 문화유산으로 꼽힌다. 하지만 국립문화재연구소 정기 안전점검 결과 지난 2010년 상층기단 갑석의 균열이 확인되면서 해체 보수가 결정됐다.

경주=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 라오스 어린이환자 쾌유 기원 국립 아동병원에 의료기 전달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에 난치병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전달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 상임이사 보경스님은 지난 2일 라오스 비엔티엔 국립아동병원을 방문해 썸마니컨 부원장에게 학생제 제조기 및 고압증기멸균기 등 의료기기와 난치병 어린이 치료용 항생제를 전달했다.

상임이사 보경스님은 “병자를 돌보는 간병 공덕은 부처님을 모시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높은 공덕을 쌓는 것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든 일을 하는 의사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면서 “라오스의 의료계 발전에 재단의 지원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처님 자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썸마니컨 라오스 국립아동병원 부원장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지원해 준 의료기기로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고맙다”면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이 완쾌돼 라오스의 미래를 이끌가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지원으로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은 열악한 의료환경의 일부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위생관리가 중요한 소아암 병동에 의료용 살균 소독기조차 없어 2차 감염이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또한 세균 감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항생제 제조기가 없어 일반 사무 공간에서 직접 약품을 섞어 사용해야 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의료장비를 한국에서 구입해 비엔티엔으로 운송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bulgyo.com

## 평화위원회 학술대회 한일불교 36번째 만남

사단법인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자승스님)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서 제36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6월 메르스 사태 확산으로 연기됐던 이번 교류대회는 ‘한일 청소년 교류를 통한 포교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일한불교교류협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을 비롯해 양국의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는 오는 12일 오후 6시 환영만찬에 이어 13일 평화위원회와 학술대회, 14일 전통문화 순례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한일 불교계는 13일 오전 10시 용주사에서 공동으로 법회를 봉행하고 세계평화를 위한 염원을 모을 계획이다. 이어 13일 오후 1시 용주사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청소년 포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학술대회에서는 ‘한일 청소년문화 교류를 통한 유대강화’를 주제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와 고야마 텐유 일본 대정대학 교수가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 이어 한일 불교계는 교류 확대와 세계평화를 위한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 발표할 계획이다.

엄태규 기자 chet1@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지난 3일 전법회관에 마련된 카페 바라밀 개원식에 참석해 테이프 절단식을 갖고 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 불자신도 무료이용 지대방 전법회관 '카페바라밀' 개원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가 불자들의 사랑방으로 전법회관 1층과 지하1층에 마련한 카페 바라밀(행복바라미 브리짓센터)을 지난 3일 개원했다. 북북문화공간인 카페바라밀은 1층에는 9인 테이블과 소형 테이블, 커피머신과 TV, 질관 등이 설치돼 있어 카페처럼 이용할 수 있다. 지하 1층은 40평 면적에 빔프로젝트, 영상 및 음향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회의실 및 전시실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날 카페바라밀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기흥 회장 취임 이후 중앙신도회가 추진한 새로운 사업 가운데 행복바라미는 모금운동의 새로운 모델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는데 이번엔 카페바라밀도 마찬가지”라며 “불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카페 바라밀 같은 공간이 조계사 인근에 더 많아져 신도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많은 불자들이 편하게 카페를 이용하길 바라며 “금일봉을 전했다. 이기흥 회장은 ‘전법회관 3층 회의실과 지하1층 회의실 및 전시공간을 연계해 불자모임장소로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며 “불자나 신도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지대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 2016년도 종단 장학금 선발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보광스님)가 내년도 종단 장학금을 선발한다. 대상은 국내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하는 스님들로, 불교학, 불교사, 불교문화, 응용불교학, 언어학 등 전공분야에 한한다. 종단의 교육, 연구 분야 중 취약한 계층, 한국불교사(근현대), 불교문화, 종교법무 분야를 우선 선발하며, 5급 승가고시 우수 합격자로 표창 받거나, 성취원에서 실시한 각종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현직 교육교역자 스님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선발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정 수료시까지 등록금 및 연구비를 포함한 장학금이 지급된다. 국내·외 대학원 진학 희망자의 경우 선발된 후 1년 유예기간 안에 입학하거나 혹은 등록금 고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1년이 경과되거나, 전공분야가 변경될 경우 선발이 취소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12월 중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 2016년도 종단 장학금 선발 공고

종단에서는 전법회관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또는 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과정에 재학하거나, 진학하고자 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종단 장학금'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불기2559(2015)년 10월 28일

☉ 대한불교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장·총무원장 자승 장학위원회 위원장 보 광

### ■ 선발 개요

- 1) 선발대상
  - ① 국내 장학금: 국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과정에 진학희망 및 재학 중인 승려 (종립대학 및 일반대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
  - ② 해외 장학금: 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과정에 진학희망 및 재학 중인 승려 (일본, 중국, 인도·동남아, 미국, 유럽 등 전지역)
- 2) 자격요건: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로 종현·종법 및 제 규정에 걸락사유가 없는 자
- 3) 선발인원 및 전공분야
  - ※ 종단의 교육, 연구의 제분야 중 취약한 '계율', '한국불교사(근·현대)', '불교문화', '종교법무' 분야를 우선 선발함

구분	국내·외 일반대학원 장학금	사찰승가대학원 장학금	
선발 분야	가. 불교학 · 초기불교 ○명 · 선불교 ○명 · 한국불교사(근·현대) ○명 · 중국불교사 ○명	· 대승불교 ○명 · 계율(율장·청규) ○명	가. 율학 ○명 나. 선학 ○명
	나. 불교사 · 한국불교사(근·현대) ○명 · 인도불교사 ○명 · 일본불교사 ○명		다. 한문불전 ○명
	다. 불교문화 · 불교문화(문화·예술·건축·콘텐트) ○명		라. 조계불전 ○명
	라. 응용불교학 · 불교윤리학(생명·생태) ○명 · 종교법무 ○명	· 불교사회의학·비교종교학·철학·일반·불교사상학·사회복지정책 중 ○명	마. 승려복지 ○명 바. 능엄·회암 ○명
마. 언어학 · 불전언어(베리어, 범어, 티베트, 중국어) ○명 · 일반언어 ○명			
바. 기타 전공(불교학 이외) · 문화 ○명 · 예술 ○명 · 철학 ○명 · 법학 ○명 · 의학 ○명 · 기타 ○명			

- ※ 장학금 신청자 선발시 유의점
  - 국내·외 대학원 장학금 선발 후, 1년의 유예 기간 안에 입학 허가서 혹은 등록금 고지서를 제출하도록 함(1년 경과시 선발 취소)
  - 실제 진학대학이 신청당시 진학희망 대학과 다르더라도 동급 수준의 대학일 경우, 선발을 인정함
  - 전공분야가 변경될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함
- 4) 장학금 지급내용
  - ① 선발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정(석사 또는 박사) 수료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함.
  - ② 장학금은 등록금 및 연구비 등을 포함하여 책정함.

### 5) 가산점 부여 내용

- ① 4, 5급 승가고시 우수 합격자로 표창 받은자
- ② 교육원에서 실시한 각종 공모전 및 평가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수상한자
- ③ 현직 교육교역자(상주교수)

### ■ 제출서류

구분	국내·외 장학금	사찰승가대학원 장학금
제출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청서(소정양식)</li> <li>② 수확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li> <li>③ 수행이력서(종단양식)</li> <li>④ 재학증명서(진학예정자는 입학 허가서 제출)</li> <li>⑤ 학부와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신청시점까지의 성적증명서)</li> <li>⑥ 서약서(소정양식)</li> <li>⑦ 추천서(지도교수 1인의 추천서)</li> <li>⑧ 재정보증서(은사스님)</li> <li>⑨ 유언장(종단에 유언장을 이미 제출한 경우는 제외)</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청서(소정양식)</li> <li>② 연구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li> <li>③ 수행이력서(종단양식)</li> <li>④ 재학증명서(진학예정자는 입학 허가서 제출)</li> <li>⑤ 서약서(소정양식)</li> <li>⑥ 교육기관장의 추천서</li> <li>⑦ 재정보증서(은사스님)</li> <li>⑧ 유언장(종단에 유언장을 이미 제출한 경우는 제외)</li> </ol>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장학금 선발에 필요한 제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아 제출하십시오.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 공지사항(공지번호:2726) → 장학금 선발 시행 공고

### ■ 장학금 의무사항

- 1) 결과보고
  - ① 과정 수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1부 및 학위수료증 사본 1부 제출
  - ② 학위 취득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1부, 취득학위증 사본 1부, 논문 2부 (외국어 논문의 경우 한글 요약서 첨부) 제출
- 2) 소임 의무
 

장학금은 해당 학위 취득 후 '장학금지급관리위원회'에 의해 종단이 지정하는 곳(중앙총무원,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찰 등)에서 수혜기간 만큼의 소임을 수행하여야 함.
- 접수기간 : 2015년 11월 2일(월) ~ 11월 30일(일)
- 결과발표 : 2015년 12월 중(조계종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접수처 : 대한불교조계종 장학위원회 (교육원)  
우)03144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 E-mail: vividcar@buddhism.or.kr  
전화) 02)2011-1812, 팩스) 02)732-4926